

[제 127회 여름대공연 조연출 인수인계서]

송하연

0. 인수인계서에 들어가기 앞서 ..

조연출 트레이닝일지를 같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캐스트 트레이닝 & 신체

1) 신체

- 오전 10시부터 동방에 와서 신체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때 신체 트레이닝을 조연출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신체 트레이닝은 간단하게 몸 푸는 것부터 시작하여 PT, 유산소 운동, 유연성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조연출 트레이닝 일지에 신체 트레이닝도 같이 적어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 신체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 같이 구호를 외친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구호를 외치는 것은 발성 증진 및 협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2) 캐스트 트레이닝

*캐스트 트레이닝은 연출을 도와서 상황극 설정 및 관계도 설정을 트레이닝 하루 전에 기획해 오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밑에는 연출과 함께 진행한 캐스트 트레이닝 진행 예시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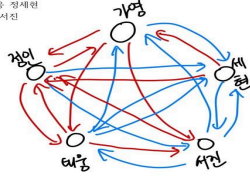
- 목적 상황극
버스를 멈춰야 하는 승객 vs 늦기 전에 회사로 도착해야하는 취준생
카페 마감을 당장 해야 하는 알바생 vs 지금 카페 밖을 나가면 안 되는 손님
나가지 말고 여기 있자 vs 나랑 같이 나가자
- AB 상황극
A: 나와봐 B:왜이래 A: 이거다 B: 좋은데?
A: 괜찮아 B: 뭐가 A: 아니야 B: 그래도
A: 장난 아니야 B: 그래 A: 미안해 B: 뭐라고
- NP 상황극 : 캐스트마다 관계도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상황극을 진행하는 방식
상황 예시) 10년만에 결혼식에서 만나는 동창
MT / 술자리

<NP 상황극>

(1)	N	P
박가영	변정인	정세현
변정인	박가영	이서진
임태웅	변정인	박가영
이서진	변정인	박가영
정세현	박가영	정세현

*모두 좋아하는 사람: 정세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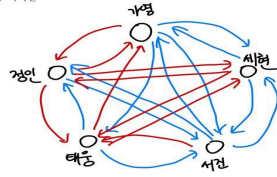
$M \sim N$
 $m \sim p$



(2)	N	P
박가영	변정인	임태웅
변정인	박가영	정세현
임태웅	박가영	정세현
이서진	임태웅	정세현
정세현	변정인	임태웅

*모두 좋아하는 사람: 이서진

$M \sim N$
 $m \sim p$



2. 조연출의 역할 설명 (지극히 개인적 생각이라는 부분..)

1) 연출 보조

: 연출은 전체 극의 진행을 관장하는 총괄자입니다. 조연출은 그런 연출 옆에서 빠지는 게 없는지, 연출이 조연출에게 전달한 사항과 키스텝에게 전달한 사항 사이에 차이가 있지는 않은지를 꼼꼼하게 체크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조연출이란 연출이 자리를 비는 사이에 부총괄자라는 역할이기에, 오퍼들의 큐를 모두 숙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연출을 도와서 이 큐가 틀리지는 않는지, 오퍼와 연출이 전달한 사항이 서로 틀리지는 않는지 역시도 체크한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건 연출이 전달한 사항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연출과의 지속적인 컨택은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연출님을 잘 도와서 극의 진행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보조하는 역할이 조연출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 키스텝 회의 보조

: 사실상 조연출은 키스텝 회의에서 발언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발언할 일이 없다고 해서 키스텝 회의에서 얻어가는 게 없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 연출님과 키스텝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듣고 중요한 일정은 연출님을 대신하여 메모하며, 연출님이 키스텝에게 전달해줘야 하는 (예를 들면 음향 컨펌은 언제까지지, 조명 디자인 제출은 언제까지지, 대본 내에 꼭 필요한 소품은 무엇인지 등등) 내용 역시 메모하며 회의를 듣는다면 키스텝 회의 진행이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3) 오퍼팀 보조(a.k.a 세미 오퍼)

: 연습 진행이 어느 정도 된 후, 시연회가 2~3주 남은 시점에서, 음향과 조명 큐가 어느 정도 픽스되고 그에 따라 연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사가 큐인 경우, 혹은 큐에 따라 대사를 해야 하는 부분 등은 오퍼 팀장들이 참관하지 않는 한 진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방학이란 개인적 일정이 겹칠 수 있고 또 각자의 생활이 있기에 조명이나 음향 팀장님들이 참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연출이 동방 내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음향을 틀고 스탠드나 동방 조명으로 조명 큐까지 맞춰보면서 오퍼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키스팀 회의에서의 조연출 메모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개인적 의견을 보태자면 동방에서의 오퍼 정말 재밌었습니다 ㅎㅎ..

4) 연습 중 상태, 대본 체크

: 연출이 장면 연습 중 감정 연기, 동선, 캐릭터성 등을 본다면 조연출은 그 옆에서 대사 틀린 부분이 없는지, 상태를 깨진 않았는지 등을 체크합니다. 대본을 떼는 1~2주차에는 대사를 틀리기 마련이기에 대본을 체크해주면서 연습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는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5) 연습 분위기 컨트롤

: 아무리 처음에 으쌔으쌔 했더라도 우리는 사람이기에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연극 연습에 있어서 텐션 저하는 바로 티가 나기에 텐션을 끌어 올리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캐짱과 함께 연습 분위기를 독려하며 화이팅을 주기적으로 외쳐 주시면 사람이 하기 싫어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음 조연출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겠습니다 😊

6) 캐스트를 따스하게 교육(?)

: 앞서 언급했듯이 연출은 이 공연의 전체적인 진행을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캐스트들의 자세 하나하나를 자세히 관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와 반성 시간에 조연출은 캐스트들의 텐션,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하고 잔소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7) 공지 전달

: 공연진 공지방에 연출과 협의한 일정, 연습 장소, 시연회 및 철야 등 각종 공지를 써서 올립니다. 연개 독방에서는 그날의 숙제 및 해와야 할 일, 독려 멘트 등을 공지합니다.

8) 이외

: 이외에는 조연출 개인만의 특성을 살려서 각종 일을 도맡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일 진행에 있어 문서화를 시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에 시연회나
공연진 명단 등을 문서화해서 확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시간 엄수를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일정 및 시간 체크 역시 꼼꼼하게
진행했었습니다. 본인만의 특성을 살려 공연장이나 동방에서의 각종 일을 도맡아
하다 보면 어느순간 막공까지 바로 진행된답니다 ^0^

3. 마무리하며 ..

다사다난한 과정을 통해 조연출이 될 다음 분에게 먼저 응원의 말씀을 보냅니다. 제가
이때까지 들어온 말로는 조연출이 모호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여름 대공연을 하면서 조연출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공연을 시작하기 전부터 연출 보조를 1순위로 하자라는 초목적을 잡고
들어갔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성균 극회에서 조연출이 최종 목표이기에 제가
해왔던 조연출 역할과 제가 잡았던 초목적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았습니다. 다음
조연출께서는 어쩌면 조연출이라는 자리가 연출로 가기 위한 발판, 어쩔 수 없는 선택, 자의
반 타의 반, 혹은 저처럼 정말 하고 싶었던 것, 혹은 그 이외의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든 다음 조연출님의 용기 있는 선택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조연출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파이팅 :)